

# 한약초 '지황' 재배로 年 10억 번다

### 화순군-한국인삼공사, '건지황' 48t 납품 계약 체결 안정적 판로 확보...동북·동·남면 등 1천여 농가 활력

“한약초 재배로 목돈을 만지게 됐습니다” 화순군 남면 유마리 2만3천140㎡(7천여평) 밭에서 2년째 약용작물 '지황'을 재배하고 있는 김연준(47)씨는 최근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판로 걱정을 덜게 됐다. 한국인삼공사가 김씨가 생산하는 건(乾)지황을 전량 사들이겠다고 나섰다 때문이다. 화순군은 지난 9일 인삼공사와 건지황 48t을 9억4천1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화순지역에서는 올해부터 건지황 판매로만 연간 10억원에 이르는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화순군은 전체 면적 가운데 산림이 74%로 한약초 재배의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이다. 화순읍과 동북, 동, 남면을 중심으로 1천20여 농가가 220ha에서 한약초를 재배, 연간 2천여 t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인삼공사와 건지황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돼 화순 한약초의 우수한 품질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계약은 한약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화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정)가 지난 4월부터 끈질기게 노력해 성사됐다. 인삼공사와의 계약 체결은 그동안 한약초를 재

배하면서도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던 재배 농가에 활력이 되고 있다. 또 한약초를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지정하는 등 농가소득 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온 화순군의 농업정책이 성과를 거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이용정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계약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한약재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업인은 고품질 한약초를 생산하고, 화순군은 안정된 판매망 개척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지황 = 현삼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뿌리를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한다. 한방에서는 건조시킨 것을 건지황, 찌서 말린 것을 숙지황이라고 한다. 강장과 빈혈, 허약증, 간장보호, 혈압강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리 학교에 도서관이 생겼어요”

###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영암 시종초에 도서관 선물

“링컨, 빌 게이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바로 독서왕입니다.” 15일 오후 영암군 시종면 시종초등학교 대강당. 30℃를 오르내리는 불볕 더위속에 전교생 150명이 모여 들었다. “성공의 지름길은 독서”라고 강조하는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김수연 대표의 독서 강의를 경청하는 어린이들의 환희 열기가 한껏 폭염을 압도했다. 이날 시종초등학교 학생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도서관을 선물 받았다. 영암군, 영암교육청,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네이버가 함께 한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연 것이다. [사진] 1925년 4월 개교한 시종초교는 그동안 졸업생만 9천여명에 이르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한때 2천명에 육박하던 학생수가 100명대로 급감

하면서 폐교 위기를 맞기도 했다. 영암군과 주민들은 교육 여건 개선만이 폐교를 막을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 도서관 지원을 요청, 그 뜻을 이루게 됐다. 다만 이번 도서관 개관을 주도했던 이교창 교장이 지난 7일 폐암으로 사망해 아쉬움을 남겼다. 3천120권의 신간 서적을 무료로 기탁한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측은 이날 이교창 교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 뜻을 기려 지속적인 서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열린 독서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은 최다현(5학년)양은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이 도서관에 가득 쌓여 너무 행복하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어린이가 되겠다”며 해맑게 웃었다. /영암=박진표 기자lucky@

## 군평선이 (딱뚝) 양식길 열렸다

### 해양연구원, 수정란 채란 성공

“너무 맛있어서 셋서방에게만 몰래 차려 준다”는 속설이 붙은 서남해안 특산이종인 군평선이(딱뚝)의 대량 양식 길이 열렸다.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원은 최근 군평선이 수정란 채란에 성공함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50만개의 수정란을 생산, 도내 연안시군 어업인들에게 분양한다. 군평선은 그동안 수정란 생산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양식이 불가능한 어종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수정란 생산기술 개발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어민 소득 증대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험연구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자연산 어미고기 30마리를 확보해 수온과 수압 등 인위적인 환경 조절을 통해 산란 수온을 맞춰 주고 성숙호르몬 주사 등을 통해 결실을 보게 됐다. 해양바이오연구원은 앞으로 기술 선점을 위해 군평선이 수정란 생산기술 개발 특허등록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100만마리 규모의 종묘를 생산, 도내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한편 양식 어민들에게도 기술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새 얼굴/

## “지역 문화재 보호에 최선 다하겠다”

### 신봉수 담양소방서장



“현장중심의 확인행정과 완벽 한 재난대응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습니다” 신봉수(53) 신임 담양소방서장은 “담양·곡성·장성지역은 빼어난 자연과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교통 요지로 특색있는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관광객과 주민은 물론 문화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 경제학과와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84년 소방공무원 근무를 시작해 해남 소방서 방호과장, 전남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정미씨와 1남 2녀가 있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 장성에 독거노인 위한 ‘사랑의 집’

### 건단련 4번째 사업...25억 들여 4층 규모 내년 2월 준공

장성에 영세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이 지어진다. 장성군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15일 오전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에서 박준영 전남지사, 이청 장성군수, 권홍사 건단련회장,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 사랑의 집(조감도)’ 기공식을 가졌다. 사랑의 집은 건설단체와 건설업체가 150억원의 성금을 모아 자치단체

가 제공한 부지에 독거노인용 공동주택 200가구를 건립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장성 사랑의 집은 용인·강화·제천에 이은 전국에서 4번째 사업으로, 2천640㎡의 부지에 25억원을 들여 연면적 2천119㎡의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다. 내년 2월 준공되면 독거노인 38가구가 입주하게 되며 경로당 등 공동편의시설도 갖추게 된다.



특히 장성 보건의료원, 장성병원, 노인병원 등의 의료시설이 인접해 있어 독거노인들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종합 복지시설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 “최고기 수입 파고 넘자” 합평 축산인 한미음대회

합평 축협은 15일 문화체육센터에서 축산인 2천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축산인 한미음대회’를 열고 축산물 품질고급화로 수입 쇠고기 파고 극복을 다짐했다. 이날 한미음 대회는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 확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축산인의 자긍심 고취와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조합사업 유공 조합원 포상과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불우시설에 사랑나눔

성금을 전달했다. 또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축종별 신양축인을 포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합평 축협 임희구 조합장은 “참조 경영을 통해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평=박영진기자 py4079@

### 도내 시설하우스

## ‘바이러스 주의보’

최근 경남 통영에서 토마토 외래 병이 발생한 데 이어 나주에서도 토마토반점병이 발견되는 등 시설하우스 바이러스 병해충에 대한 농가의 철저한 방제작업이 요구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나주지역 일부 시설하우스를 중심으로 토마토반점위조병(TSWV)으로 고추와 피망 등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

토마토반점위조병은 발병 초기에 원형의 희미한 반점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토마토나 고추 등 과실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 결국 고사하게 되는데 2006년부터 도내에서 발견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토마토 반점위조병이 일부 토마토 재배농가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나 확산될 경우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 완도군의회 후반

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후유증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후유증은 지난 1일 비례대표인 차용우 의원이 2차 투표 끝에 의장에 선출되면서부터 예견됐다. 지난 10일 열린 168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의장선거에 낙방한 일부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통해 신임 의장 흡집 내기에 나서면서

### 전체 의원 9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의장을 단지 비례대표라는 이유로 깎아내리는 것은 의원들이 선택한 투표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반 여론은 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도지역은 수산물 어획 부진

## 신임 의장 흡집내기 중지해야

비롯됐다. 비례대표가 어떻게 의장에 당선될 수 있느냐에서부터 인터넷에 나도는 출처불명의 금품수수설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군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된 불협화음을 지켜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차



### 정은조

(사회2부 완도주재)

갑기만 하다. 후반기 의회 출범부터 감투싸움 후유증으로 지역발전은 뒷전에 밀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의회 내분이 자칫 집행부 발목잡기로 이어질 경우 군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지금은 새로 선출된 의장 흡집 내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신임 의장단은 중심으로 힘을 합쳐 모으고 집행부와 함께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민선 4기 후반기에 완도군의회가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군민들의 엄정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Advertisement for 'Namgol-dang' (남골당)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promoting a 'Korean Cultural Festival' (무등산 문화행사) and 'Namgol-dang' (남골당이 있습니다). It includes details about a 'Parent-Teacher Meeting' (학부모와 담신회 모임을 누가 관리하십니까?)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festival.

Advertisement for 'Boram Sangjo' (보람상조)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an in a white shirt and text promoting 'Boram Sangjo' (보람상조) and 'New Family' (새가족을 모십니다).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mpany'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